

레비나스 ‘얼굴 윤리학’의 퍼스 기호학적 이해*

박연규**

【 차 례 】

- I. 들어가는 말
- II. 타인의 얼굴
- III. 레비나스의 얼굴은 신의 얼굴인가, 사람의 얼굴인가
- IV. 얼굴의 퍼스기호학적 이해
- V. 나오는 말

국문초록

이 글은 레비나스의 “얼굴을 보면 윤리가 발생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논의를 퍼스 기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모색해본 것이다. 레비나스의 윤리학을 성립하게 하는 ‘얼굴’이 말 그대로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타자의 얼굴인가, 아니면 그의 형이상학에 기반하여 요청된 당위로서의 얼굴인가하는 문제는 레비나스의 얼굴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즉 그의 얼굴은 신의 얼굴인가, 아니면 사람의 얼굴인가 하는 데 따라 그의 윤리학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윤리학으로 전개될 수 있는가 아닌가의 갈림길로 들어서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레비나스의 얼굴에 대해 퍼스 기호학의 삼분법적 해석학을 적용하여 이러한 논쟁이 어디에서 발생되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퍼스 기호학으로 얼굴을 풀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타인의 얼굴에서 얼굴의 윤리학을 다양한 층위에서 발견할 수 있다. 레비나스가 사용하는 얼굴 개념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얼굴에서 시작하지만 동시에 신의 현현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논자는 그의 얼굴 논의를 아이콘, 인텍스, 그리고 상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2014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기대학교

레비나스의 얼굴은 강력한 인덱스적 기호로 작동하지만 동시에 아이콘적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의미도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호체계의 연동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얼굴 윤리학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수적으로 레비나스의 얼굴 윤리학을 기호해석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호학의 본래 임무인 해석학적 의의를 재확인하는 기회도 되리라 본다.

열쇠어 : 레비나스, 얼굴의 윤리학, 얼굴보기, 퍼스 기호학, 아이콘, 인덱스, 상징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레비나스의 ‘얼굴’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근거와 함의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의 얼굴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체로 타자 윤리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말 그대로 “얼굴을 본다”고 해서 윤리적 사건이 저절로 발생할 것인가는 논란이 된다. 물론 레비나스의 윤리에서는 얼굴보기가 윤리적 충분조건이 되며 더 이상의 다른 추가 요소가 필요 없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얼굴보기와 윤리 발생 사이에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그에게는 필요가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인의 얼굴에서 그의 상처나 고통을 읽어내기가 쉽지는 않다.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매개로서 얼굴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얼굴보기 자체가 윤리적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살지만 그것이 늘 윤리적 계기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타인의 얼굴을 통해 “실제로 존재하는” 윤리적 특성, 즉 윤리적 실체를 발견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타인을 배려하고 염려하는 매개로서 얼굴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윤리적 사건으로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타인의 얼굴을 통해 그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윤리적 계기를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가는 논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 연구자들은 대체로 이 주제에 대해서 타인의 얼굴보기를 윤리적 계기가 만들어지는 핵심 과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얼굴보기 자체에서 윤리적 사건의 발생까지에는 일종의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보아야 윤리적 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하는 것은 레비나스의 윤리학 전체를 조망하는 일에 해당된다.

논자는 이러한 얼굴보기에 얽힌 문제들을 퍼스의 기호학적 해석의 방식을 가져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레비나스의 얼굴에 대한 국내 주류 연구자들의 글은 얼굴을 보는 실제적인 행위를 통해 윤리적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동시에 얼굴보기가 윤리적 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레비나스를 따라 절대 타자, 즉 ‘신적 환원’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일상적 타자라는 복수 개념을 가져와 세속적으로 해결하기도 한다.¹⁾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들은 자칫 얼굴보기에 일련의 윤리적 강요를 만들어내는 문제가 있다. 논자는 레비나스의 얼굴을 해석학적 접근이 가능한 퍼스 기호학을 가져와 이른바 ‘존재론적 채워 넣기’에 갇힌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보고자 한다. 타인의 얼굴을 실제로 존재하는 물적 또는 실체적 조건이 아닌 해석 조건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논의가 갖는 형이상학적 난제, 즉 얼굴에 대한 실제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레비나스가 말하는 신적 또는 형이상학적 얼굴은 이러한 실제적 얼굴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비록 얼굴에 신적 특성을 부여하여 실제적 특성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자칫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특정 얼굴에 신적 환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1) 레비나스는 물론 신적 환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으며 이것을 위험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그의 책 *Totality and Infinity* 에는 무한(infinity) 또는 현현(epiphany)이라는 개념이 논자가 사용하는 신적 환원을 대신한다. 또한 ‘얼굴로서의 현현’(the epiphany as a face)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신적인 얼굴의 출현 자체가 얼굴을 적극적으로 정의한다고 할 수 있다. (*Totality and Infinity* 187쪽 참고)

얼굴 이해에 다양한 논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타인의 얼굴을 읽어내고 그것을 통해 윤리적 계기를 만드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논자의 기호학적 접근이 지금까지의 레비나스의 윤리학 전공자들의 연구 방법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실재하는 얼굴 현상을 해석적 기호로 전환시켜 논의하는 것이 기존 윤리학자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연구방법론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퍼스도 분명히 말했지만 “인간은 기호이다.”(Man is a Sign.)라는 슬로건에서 사람의 얼굴도 기호로 해석되는 데 비켜갈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얼굴을 기호로 접근했을 때의 장점은 얼굴 윤리의 존재론적 기반 또는 형이상학적 기반의 신성의 실재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퍼스 기호학에서의 아이콘은 실재성을 기호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퍼스의 기호학을 이용하면 얼굴과 윤리발생 사이에서의 인과적이고 존재론적인 물음 등이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얼굴보기의 과정을 실재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기호해석학적 과정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레비나스의 얼굴 윤리학이 세속의 윤리학으로 확대될 것인가, 아니면 형이상학적 담론으로 그칠 것인가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II.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가 얼굴보기를 윤리적 계기로 삼게 되기까지의 그의 철학적 논의를 살펴보자. 한 개인이 타인의 얼굴을 만나기까지의 전체 과정은 레비나스가 존재론적 모험이라는 이름하에 익명적 존재에서 주체로, 다시 주체에서 타자로의 이행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존재에서 존재자, 다시 존재가 타자로 초월되고 넘어가는 과정이 그의 철학의 전체 모습이라면, 타인의 얼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제적 또는 관념적인 윤리의식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들어진다. 레비나스 이전에는 윤리학이 얼굴이

라는 신체의 물적 표현을 가지고 전개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점에서 그의 윤리는 아주 독특하다. 그의 “얼굴에서 책임으로”라는 테제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²⁾ 무엇보다 그의 윤리의 중요 지점은 자유나 책임의 소재지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나와 타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사건’을 통해 찾아내는 데 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단순히 나와 타인과의 상호적 관계라기보다는 나 아닌 타인 중심의 관계 설정을 통해 윤리적 사건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는 윤리적 계기가 타인에게 있음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적이 된다는 사실은 타인의 얼굴을 전제로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윤리 설정과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대함으로써 “본래의 인간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인 자아성찰”의 계기까지 실현되고, 직접대면을 통해 “이상적인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고 “이웃하는 자아”로 거듭남으로써 삶의 진실성을 기대하게 된다.³⁾ 타인의 얼굴을 읽어내는 일은 나의 “생존과 직결”되기도 한다. 관계로부터의 고립은 “죽음과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얼굴은 “나와 상관없는 개별적인 것”일 수 없다.⁴⁾ 얼굴은 누군가에 의해서 보인다는 사실로 인해 보는 사람의 특정 경험과 욕구, 의도, 그리고 사회적·문화적 조건이 강하게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도 해석의 과정일 수 있고 얼굴도 예외일 수 없다. 얼굴을 봄으로써 윤리가 발생한다고 할 때 이 또한 해석의 과정이며 레비나스의 얼굴도 이미 해석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나에게 ‘말을 건네 오는’ 얼굴의 다양한 표현들을 생각해보자. 얼굴은

2) 레비나스는 얼굴의 나타남에는 이미 비폭력이 내재되어 있고 그 얼굴을 보는 나로 하여금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요청하고 책임을 기초지우는 것으로 본다. (그의 책 *Totality and Infinity*, 203쪽 참조)

3) 윤대선, 「타인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인가」, 『레비나스의 타자철학』, 제 9장, 문예출판사, 2009, 285~298쪽.

4) 서영이, 「상법(相法)의 은유적 변용」, 『철학』 제125집, 2015, 6~7쪽.

일차적으로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밖에 있는 어떤 것이다. 다른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고 나와는 절대적으로 다른 어떤 것이다. 얼굴은 일반적인 사물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예측할 수 없고 표상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유일한 것이다. 한편으로 얼굴은 표현의 내용이기 전에 표현 그 자체이다. 얼굴은 나의 기대와 예측을 벗어나며 얼굴을 통해 우리는 만남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또한 얼굴에서의 입은 나에게 말 건네 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약자의 말 건넌은 나에게 명령, 요구, 호소, 간청으로 온다. 굳이 약자가 아닌 보통 사람의 경우에도 그가 힘들어 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으므로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 타인과의 윤리적 사건의 층위는 이러한 일반적인 관계맺음에서 시작하여 책임의 강력한 소재가 되는 타인의 고통의 발견, 약함과 힘듦의 발견 등으로 진행하면서 윤리적 계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관계맺음에서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을 통해 책임윤리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이는 타자의 얼굴을 통해 윤리가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뜻이다. 책임짐은 응답함이며 응답함은 요청에 반응하는 것이다. 타인의 일에 관여하고 개입하는 행위, 자신에 대한 몰입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윤리적 계기가 형성되어 마침내 얼굴보기라는 행위로 정점을 이룬다. 레비나스의 얼굴은 관계 맺음의 특이한 형식을 만들어준다. 그에게 있어 타인의 얼굴은 개인적 한계로부터 벗어나 다른 세계로 진입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얼굴로 대면하는 타인은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 타자가 되며 얼굴을 마주함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 타인으로서의 향함이 바로 레비나스에게는 윤리인 것이며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 타인의 얼굴보기가 있는 것이다.⁵⁾

5) 레비나스는 얼굴의 언어적 역할을 타인의 얼굴을 제대로 읽어내야 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본다. 얼굴을 통해 신의 현현(epiphany)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얼굴이 말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language’ 또는 ‘discourse’ 등을 통해 자세히 설명되고 있으며 (*Totality and Infinity*, 195, 204쪽), 윤리적 관계의 핵심으로도 기술된다. (“얼굴은 말한

얼굴이 드러나는 모습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사람의 얼굴만큼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없다. “얼굴이 드러난다”는 말은 그것이 신비로움을 지니고 우리 앞에 마주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얼굴의 나타남은 나 자신과는 다른 맥락에서 새로운 인간성의 차원을 열어주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타인의 얼굴의 드러남은 내 자신의 의도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얼굴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또는 ‘자기 자신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얼굴은 나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나에게로 어쩔 수 없이 인식되어져 오는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차원에서 오는 것으로 내가 만든 틀이나 어떤 체계 속에 포섭될 수 없는 것이다. 얼굴은 외부적인 힘에 대해 저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얼굴로부터 도덕적 호소력이 나온다. 레비나스의 철학적 자세는 “시선에 담긴 타인의 얼굴에서 강렬한 윤리적 자극을 체험하는 나를 만들고 그러한 나를 유아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에 있다.⁶⁾ 그런 의미에서 얼굴에서의 타자의 시선은 “나 스스로의 윤리적 정의를 실천하라는 무언의 명령”으로 나타난다.⁷⁾ 이러한 얼굴보기의 구체적 역할을 담당하는 시선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시선은 얼굴을 직접 대면함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시선은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타인을 대하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내가 타인을 보거나 타인이 나를 보거나 어느 경우에도 시선은 어떠한 ‘매개 없이 직접’ 작동한다. 한 개인의 동정심도 얼굴, 특히 그의 눈을 볼 때 강하게 일어난다. 부버가 관계를 맺으려는 어린아이의 본능을 언급하면서, “처음에는 타자를 손으로 접촉해보고, 그 다음에는 타자를 눈으로 접촉해 봄으로써” 관계를 생성한다고 한 것도 시선이 갖는 관계 맺기의

다. 모든 말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말을 시작하는 것이 얼굴이다.(중략) 참된 관계란 바로 말이다. 그 말은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응답이요 책임이다.”; 『윤리와 무한』, 112~113쪽)

6) 김진택, 「시선의 현상학적 경험과 봄의 나르시시즘」, 『프랑스문화연구』 제 16집, 2009, 234쪽.

7) 김진택, 위의 글, 235쪽.

장점 때문이다.⁸⁾

레비나스에게 있어 윤리는 얼굴을 보고 눈을 보는 행위를 통해서 시작된다. 그의 윤리는 인간관계의 구체적인 시선이라는 조건만 적절히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윤리를 어떤 의도적이고 대단한 인간 기획의 산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시선과의 관계맺음이라는 단순한 사실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윤리 체계 형성에 있어 대단히 새롭고 효율적인 면이 있다.⁹⁾ 레비나스에게 있어 책임의식은 이미 어쩔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되고 윤리는 이러한 시선의 주고받음이라는 ‘자연스러운 발견’으로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윤리는 생각이나 숙고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선의 발견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타인과 시선을 주고받는 최소한의 능력 또는 태도로도 윤리적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레비나스의 윤리에는 윤리적 행위의 효율성과 실천 가능성이 다른 어떤 윤리적 가르침보다 더 쉽고 빠르게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상대의 얼굴에서 의도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시선은 이타적인 행위로 이끌어 간다. “능동성에 기인한 의식의 지향적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 “나의 감성에 작용하고 호소하는” 나타남에 가까운 시선은 이타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¹⁰⁾ 다시 말해

8) 마르틴 부버, 김천배 옮김, 『나와 너』, 대한기독교서회, 2011, 46쪽.

9) 물론 레비나스는 얼굴을 지각 자체로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얼굴보기라는 행위, 그의 표현대로 한다면 “얼굴로 나아가는 것”을 윤리라고 본다. 그는 “남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식은 그의 눈 색깔마저 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얼굴은 그에게 있어 ‘뜻’이고 ‘의미’이며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윤리와 무한』, 109~111쪽) 그러나 논자가 생각하기에 이는 그가 얼굴의 철저한 외재성 논변을 위한 것이지 얼굴 자체에 대한 분석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얼굴보기의 의도 자체도 이미 얼굴에 대한 개별적 감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Totality and Infinity*, 187쪽) 레비나스의 얼굴 윤리학이 얼굴 자체의 세세한 논의를 위한 얼굴 현상학인 것은 아니지만, 얼굴의 형이상학을 위해서 얼굴보기의 구체적인 현상 자체를 무시하고 그의 얼굴 윤리학을 전개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만일 얼굴의 윤리학을 논의하면서 얼굴에 대한 고통, 정직함, 별거벗음, 또는 헐벗음 등의 현상을 무시한다면 그의 얼굴 윤리학의 논의는 시작될 수 없을 것이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막시완이 가졌던 의문도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논자가 레비나스의 얼굴보기를 기본적으로 퍼스의 인덱스적인 기호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선이 레비나스 얼굴 윤리학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면 이타성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선의 회피는 왜 일어나는가. 왜 우리는 쉽게 타인의 얼굴이나 시선으로부터 돌아앉게 되는가. 앞서 언급된 바처럼 윤리가 나의 자율에 의한 것이 아닌 상대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라면 그의 얼굴과 시선은 내가 받아들인다기보다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관계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럼에도 회피는 일어나고 그에 따른 비윤리 또는 악적 행위가 일어나기도 한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이러한 시선 회피를 막기 위해 윤리 생성의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노력과 윤리적 계몽을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이 말은 얼굴보기가 윤리 발생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고 다른 외적 조건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바로 이 지점이 레비나스의 얼굴 윤리학에서 당위로서의 ‘신적 얼굴’이 요청된다. 얼굴보기라는 실제적인 인덱스적 접근만으로는 레비나스의 얼굴 윤리학을 완전하게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Ⅲ. 레비나스의 얼굴은 신의 얼굴인가, 사람의 얼굴인가

지금까지 레비나스 얼굴 윤리학의 기본적인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입장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의문 하나를 살펴보자. 논자가 얼굴 윤리학에 퍼스 기호학 도입의 필요성을 느낀 이유는 바로 이 의문이 신적 요청의 기반인 존재론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레비나스는 얼굴을 신의 현현으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퍼스 기호학을 가져오는 이유는 그의 기호학에 깔린 철학이 전통적으로 존재론적이고 실재론적인 질문을 기호해석학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강렬한 의지에 있기 때문이다.

윤리는 두 사람 이상을 전제로 해야 하고 윤리가 만들어지려면 타인에

10) 김모세, 「프랑스어 모리악과 타자의 문제: 시선과 얼굴의 개념을 중심으로」, 『프랑스학연구』 36집, 2006, 12~14쪽.

계로 진행되어야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즉 옆에 있는 타인을 의식하고 그에게로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진행은 벡터적인 역동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옆에 누군가가 있다고 해서 윤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옆에 있는 타인을 의식하여 그에게로 향해갈 때 가능하다. 레비나스가 타인의 얼굴을 보는 것이 윤리이다라고 했을 때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타인과 ‘같이 있음’에 대한 강력한 지향적 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이 있다고 해서 타인이 ‘내 것’으로 환원될 수 없고 자기와 동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레비나스에게 있어 윤리적 계기는 내가 어떻게 타인을 볼 것인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타인 스스로가 얼굴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즉 타인의 외재성과 절대성은 나와 다른 그 자체이므로 내가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 일반적인 사물을 인식할 때는 그 사물이 인식의 대상이 되지만 사람의 얼굴은 그러한 물질과는 달리 보는 사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즉 보는 사람의 “맥락과 지평을 떠나 스스로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¹¹⁾ 이러한 타인의 철저한 자기성이야말로 그가 나와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윤리의 가장 원초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 개인이 있다는 사실, 그리하여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오롯이 있게 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를 받아들이어 선을 실천하고 정의를 세우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실천적인 행동”¹²⁾ 밖에 없다. 그러나 얼굴로 나타나는 타자의 속성을 이렇게 절대 무한성으로 간주할 때 그 무한성이 개인 자신이 후천적으로 습득한 것이 아니라 외부 즉 형이상학적인 신적 속성에 의해 이미 내재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낳게 한다. 이 의문은 레비나스의 타자윤리가 얼굴보기라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위로서 요청되는 결과를 낳

11) 강영안, 「얼굴과 일상」,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 39집, 2012, 280쪽.

12) 강영안, 같은 글, 281쪽.

게 하며, 결국 얼굴보기 행위로는 적절한 윤리감을 만들어 낼 수 없음을 말해준다.

비록 얼굴이 “윤리적인 최초의 신호”¹³⁾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신의 얼굴로 간주하며 구체적인 사람의 얼굴로 보지는 않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정의의 이름으로 윤리적 관계 안으로 진입”할 수 있지만, 그 얼굴은 “나와 비대칭적 초월적 관계로 나의 위, 즉 저 높은 곳에 존재하며 나에게 오직 명령만 내리는” 얼굴일 수 있다.¹⁴⁾ 즉 레비나스에게 자주 발견되는 표현인 타자에 의한 수동성, 불모와 같은 개념이 성립될 수 있는 이유도 그 얼굴이 주위에서 보이는 구체적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신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얼굴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얼굴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단순히 “윤리적 책임을 요청하기 위해 레비나스가 메타포로서 제시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¹⁵⁾

이런 주장은 레비나스의 타인의 얼굴에 대한 논의를 세속적인 윤리로 환원해서 이해하려고 했던 기존의 논의에 대한 부정이다. 레비나스가 수직적인, 즉 신에서부터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윤리를 말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논의되어야 할 일반적인 윤리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윤리라는 말도 성립될 수 없다. 윤리는 어디까지나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발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 얼굴이 신적 얼굴이고 인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은유에 지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출구를 찾아야 한다. 인간의 얼굴이 신의 얼굴(imago dei)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마고 데이는 은유로 끝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얼굴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것이며 거기에는 사실적 재현이 없음을 의미한다. 레비나스의 얼굴이 신, 무한, 타자와 닮은 개념으로 사용된다면 이 개념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

13) 박치완, 「레비나스의 ‘얼굴’; 윤리학적 해석이 가능한가」, 『범한철학』 제 64집, 2012 봄, 176쪽.

14) 박치완, 같은 글, 178쪽.

15) 박치완, 같은 글, 179쪽.

고, 그리하여 얼굴은 비유적인 것에 불과하고 얼굴을 실제로 보면서 윤리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비현실적이게 된다. 얼굴을 보고 윤리적이 된다는 말이 현실세계에서는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논자는 한 가지 중재 안을 제안해 본다. 타자 얼굴의 무한성이 신적 속성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자. 그럼에도 실제로 타자 얼굴에서 나오는 현실의 고통은 적어도 사람의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살아 움직이는 고통 받는 얼굴이 존재한다. 얼굴이 현재 자신의 고통을 말하는 것도 사실이다. “목소리로 나에게 다가오는 얼굴”¹⁶⁾이 있고 이러한 목소리는 실제로 고통이나 상처로 표현된다. “타자의 얼굴에서 오는 힘은 상처받을 가능성, 무저항성에 근거”하며 그 때문에 “얼굴로부터 도덕적 호소력이 나온다.”¹⁷⁾ 타인의 고통의 얼굴로 인해 대속 개념이 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얼굴이 나에게 그의 호소나 요구를 들어달라고 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타인의 얼굴은 이러한 호소를 구체적인 고통의 얼굴로 말하지는 않는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레비나스가 말하는 얼굴은 보이지 않는 얼굴”이며 “때로는 주름진 얼굴로, 고통 받는 얼굴로 등장하지만 그 신음조차 보통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는 얼굴이다. 우리의 삶의 체제 안에는 사실상 자리가 없는 얼굴”인 것이다.¹⁸⁾

이렇게 상처받을 수 있는 얼굴이 ‘혈벗은 얼굴’이지만 그럼에도 굳이 레비나스의 얼굴을 두고 “윤리를 공론화하려고 한다면 이 얼굴을 보다 심화시켜야” 하며, 그리고 이 얼굴도 결국은 “인간의 얼굴에 관한 언급이 아니라 곧바로 그 속에 현시하는 신의 얼굴”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¹⁹⁾ 결국 레비나스의 얼굴 윤리학으로는 현실적으로 얼굴의 윤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어려움은 레비나스의 얼굴 윤리학이 성립하려면 그 얼굴이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얼굴이어

16) 강영안, 앞의 글, 282쪽.

17) 강영안, 앞의 글, 283쪽.

18) 강영안, 위의 글, 284쪽.

19) 박치완, 앞의 글, 180~181쪽.

야 하는데도 그것이 신적 근거에서 나온 것이어서 ‘윤리학의 지평’²⁰⁾에 소속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레비나스의 얼굴은 우리가 기대하는 일반윤리와 관계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그만의 특수윤리의 구축을 위해 얼굴이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레비나스에게 있어 얼굴은 언제나 무한, 동근원적이며 극단적으로는 부재로 임재하는 제 3자에 관한, 굳이 이름 붙여 옛 신의 영광을 지상에서 재연시키기 위한 메시아적 윤리학이지, 이 지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 받고 추방당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윤리, 실천윤리로서 실현될 수 있는 윤리 일반에 관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²¹⁾

직접대면의 레비나스의 얼굴 윤리학은 현실적으로 윤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까. 신적 얼굴이라는 은유만 있고, 직접대면을 벗어난 일반화된 얼굴만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만나는 혈빛은 얼굴이 있다. 또한 많은 경우 그 얼굴을 통해 양심과 동정심이 만들어지고 배려와 염려, 그리고 관심과 개입으로 일정한 윤리적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사실이다. 즉 책임이 생성되고 그 책임의 소재지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가난한 이웃의 얼굴을 보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레비나스의 얼굴을 신의 얼굴로 몰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얼굴로 가져올 것인가라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 하나로는 레비나스의 얼굴 윤리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논자는 이 상반된 입장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론이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20) 박치완, 위의 글, 182쪽.

21) 박치완, 위의 글, 186~187쪽.

IV. 얼굴의 퍼스기호학적 이해

레비나스의 얼굴은 실재하는 얼굴인가, 아니면 신적 얼굴의 요건으로서의 은유에 불과한 것인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인의 얼굴에서 윤리적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고통과 약함이 무수히 발견된다. 고통 받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고 직접대면의 ‘윤리적 효과’가 분명히 작동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얼굴의 고통을 읽어내는 근거인 신의 얼굴이 전제되어야 그 고통을 일반화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기호학적 해석의 방법을 가져와 ‘얼굴 일반’을 기술할 수 있다면 윤리적 계기 발생의 근거를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

얼굴은 아이콘, 인텍스, 상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²⁾ 얼굴은 상징적인 것일 수 있지만 이 실제적인 상징에서 신적 얼굴 영역이 차지하는 아이콘적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퍼스 기호학에서는 은유 안에서조차 아이콘적 가능 실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얼굴을 단순히 의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또는 신의 얼굴에서 ‘빌려 온’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 동시에 얼굴의 아이콘적 특성은 얼굴의 상징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 비약으로 보이는 것을 기호학적 관계로 연결시킬 수 있다. 즉 신의 얼굴은 구체적인 개인의 얼굴을 통과해서 사회화 또는 공동체적인 일반적인 얼굴로 자라난다. 이는 “모든 공동체는 살아있는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웃의 얼굴을 상징 기호로까지 끌어갈 수 있다.²³⁾

22) 퍼스에게 있어 기호의 전체 틀은 기호(sign), 대상(object), 해석체(interpretant)로 나뉜다. 세계를 설명하는 요소를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삼원적(triadic) 분석 틀이다. 그는 ‘sign’이라는 말의 외연성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서 실제로는 이 말 대신에 ‘representam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주로 그의 기호의 세 가지 특성인 아이콘(도상), 인텍스(지표), 상징을 중심으로 해서 얼굴 분석을 하고자 한다. 아이콘은 유사성 또는 닮음으로 이해되지만 퍼스에게는 ‘추상화 과정’(process of abstraction)으로서 “모든 논의가 보다 정교화되고 잘 설명되기 위한 조건”이다. 인텍스는 구체적 개별성을 뜻하는 것으로서 퍼스는 이를 ‘비일반성’(anti-general), ‘개별성’(haecceity), 또는 ‘이것임’(thisness)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상징은 아이콘과 인텍스를 통해 자라나온 것으로 일반성을 의미한다. (논자의 “퍼스 기호학의 이해”참조)

23) 미셸 앙리, 박영옥 옮김, 『물질 현상학』, 자음과 모음, 2012, 226쪽.

퍼스 기호학의 관점에서 보면 얼굴보기에서 발생하는 타자로의 초월은 얼굴이라는 일차적인 아이콘의 기호가, 실제하는 얼굴과의 관계, 눈 맞춤, 접촉이라는 인덱스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나아가 배려와 염려, 사랑 등의 윤리적 행위의 상징으로까지 변화될 수 있다.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마주하고 있는 타인의 얼굴은 인덱스적인 것이지만, 시공간적 장소의 특성의 본래적 흔적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아이콘적일 수 있고 또한 상대와의 시공간 상황을 하나의 살아있는 사회적 의미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이라 할 수 있다. 아이콘 또는 상징의 어느 것이든 간에 인덱스적인 시공간의 구체성이나 개별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콘적 얼굴과 상징적 얼굴이 동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즉 얼굴보기의 전체 열개가 하나의 기호가 되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퍼스에게 있어 기호는 아이콘, 인덱스, 그리고 상징의 합이다. 기호가 기호로서 성립하려면 그 강약의 정도만 있지 이 세 가지 조건을 항상 갖추어야만 한다. 즉 아이콘이 강조되는 경우, 인덱스가 강조되는 경우, 그리고 상징이 강조되는 경우만 있을 뿐이지 이 세 가지는 언제나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을 이루면서 하나의 기호 체계를 형성한다. 이런 관점에서 얼굴도 세 가지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얼굴의 신학적 근거, 형이상학적 근거로서의 무한성, 그리고 신의 얼굴은 아이콘으로 대체될 수 있다. 퍼스에게 있어 아이콘은 철저한 추상화과정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인덱스적인 타인의 얼굴은 항상 아이콘으로 ‘되돌릴 수 있으므로’ 그 원초적인 이미지를 아이콘을 통해 얻어낼 수 있다. 퍼스는 이것을 되돌림 또는 퇴행(degeneration)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즉 실제하는 얼굴에서 순수한 의미에서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얼굴보기 등과 같이 특정 타인에 대한 개입, 관심은 전형적인 인덱스적 상황이다. 타인의 얼굴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고통을 찾아내고 거기에 응답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셋째, 이웃이나 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 또는 3자 개념으로의 확대는 상징의 상황

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con	Index	Symbol
얼굴의 신학적 또는 형이상학적 근거 (신적 무한성, 현현의 얼굴, 욕망)	얼굴보기 또는 얼굴로 나아감 (개별화된 무한성; 외재성)	이웃 공동체의 얼굴 (사회화된 무한성; 제3자)
순수 내적 얼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별 얼굴	이웃의 얼굴 (보편적 얼굴)
윤리발생의 조건 (자율)	직접대면의 윤리적 과정 (관심과 배려)	사회윤리 (책임윤리 성립)
내재화 또는 성찰된 인간 고통 (양심)	한 개인의 고통 (반응, 응답)	사회화된 고통 (정의감 성립)

[표 1] 얼굴에 대한 세 가지 기호학적 관점

위의 표처럼 얼굴을 세 가지 관점에서 나누어 보면 앞에서 논의되었던 얼굴보기에서 발생했던 연구자들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레비 나스는 이 세 가지 얼굴의 모습을 그 때마다 다르게 기술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을 수 있다. 얼굴을 인덱스적 관점, 즉 실제적인 대면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생기는 문제는 상대의 얼굴을 본다는 것 자체, 또는 상대의 얼굴에서 고통을 발견한다고 해서 곧장 양심이 작동하여 윤리 행위로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는 데 있고, 또한 그것이 사회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직접적인 얼굴보기를 하지 않아도, 즉 직접대면을 통해 타인의 얼굴에서 고통을 발견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회화될 수 있는 경우는 항상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혼자 스스로 인간의 고통의 의미를 얼마든지 숙고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사회일반의 고통에 대한 문제 해결로 나설 수도 있다. 직접적인 얼굴보기를 통하지 않아도, 즉 구체적인 고통을 목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통에 대한 사회화 과정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

내가 고통 일반에 대한 지식과 이해,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도 윤리 의식은 얼마든지 사회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퍼스 기호학의 관점에서 말하면 인텍스가 없거나 현저하게 약화되어, 즉 인텍스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이콘에서 곧장 상징으로 변화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퍼스 기호학의 체계에서 인텍스가 빠진 기호는 기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노숙자의 얼굴을 거리에서 보지 않고 사진으로 보거나 티브이에서 봤다면 그 얼굴은 인텍스적인 요소가 거의 상실된 상태이다. 지하도나 거리에서 자고 있는 노숙자의 얼굴을 현장에서 직접 볼 때만이 그 얼굴의 인텍스적 상황을 가장 잘 읽어낼 수 있으며, 그 고통의 현장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남루한 옷, 배고픈 목소리, 추위에 떠는 모습 등이 바로 그 장소 그 자리에서의 얼굴을 잘 보여준다. 레비나스가 그토록 타인의 얼굴에서 보고자 한 것도 이러한 인텍스적인 상황일 것이다. 그것을 통해 고통의 근원을 생각하고 고통을 이웃에게로 확산시키려고 하려했던 것이다. 아이콘적 차원에서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타인의 얼굴로 ‘스며들어’ 나타나게 된다. 타인의 얼굴에서 신적 메시아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경로는 고통 일반이라는 아이콘적 요소 때문이다.

얼굴의 인텍스적 특성이 중요한 만큼 이 문제를 레비나스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는 얼굴을 크게 무한과 얼굴, 윤리와 얼굴, 이성과 얼굴이라는 세 가지 접근법으로 설명한다.

첫째, 무한과 얼굴이라는 접근법에서 그는 한 존재의 외연성은 본질적으로 그 안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외연성은 추론의 산물이 아니라 얼굴로 인해 발생하는 신적 현현(epiphany)의 산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무한은 얼굴과의 관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본다.²⁴⁾ 이 외연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얼굴이 직접 보여지고 만져질 수 없음인데 그는 이를 얼굴은 이미 거절(refusal)의 형태로 얼굴 안에 들어 있다

24) Levinas, Emmanuel, *Totality and Infinity*,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p.196.

고 한다고 말한다.²⁵⁾ 레비나스의 이 거절이 비록 얼굴의 속성의 끝이 무한에 있지만 그 과정은 거절이라는 인덱스적인 것이라는 데 있다.

둘째, 윤리와 얼굴이라는 접근법에서 그는 얼굴은 누군가에 의해 소유되고 누군가의 힘에 의해 놓이는 상황에 저항한다(resist)고 말한다.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파악되고 이해되는 것에 전면적인 저항(total resistance)이다. 즉 타인의 구체적인 얼굴을 보는 순간 그것은 내가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한다.²⁶⁾ 이것은 앞의 거절과 마찬가지로 얼굴을 직접 만나는 구체적인 상황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므로 인덱스적인 과정을 밝힐 수밖에 없다. 거절이나 저항은 직접대면의 현실적이고 개별적인 한 사람의 얼굴에 대한 반응이다. 비록 그 얼굴을 보는 나로 하여금 말을 걸게 하고 나의 힘과는 부적합(incommensurate)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한다하더라도 상대의 얼굴을 보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레비나스의 윤리적 저항(the ethical resistance)²⁷⁾은 궁극적으로는 무한과 윤리에 종사하더라도 그 과정은 강력한 인덱스적 행위인 것이다.

셋째, 이성과 얼굴의 접근법에서 레비나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표현은 명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산물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표현의 적절한 사건은 누군가에 의해 목격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바로 얼굴이나 얼굴이 말하는 것으로만 입증(attestation)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⁸⁾ 이러한 목격되고 입증되는 행위도 구체적인 인덱스적인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얼굴은 증거를 가능하게 하는 증거 그 자체이다”(The face is the evidence that makes evidence possible)²⁹⁾라는 말은 구체적인 얼굴보기 행위를 가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5) Levinas, Emmanuel, *ibid.*, p.194.

26) Levinas, Emmanuel, *ibid.*, p.197.

27) Levinas, Emmanuel, *ibid.*, p.199.

28) Levinas, Emmanuel, *ibid.*, p.201.

29) Levinas, Emmanuel, *ibid.*, p.204.

거절, 저항, 입증 이 모든 것들은 얼굴에 가까이 가는 행위에서 발생하며 이는 퍼스 기호학에서의 인텍스적인 기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레비나스의 얼굴의 인텍스적인 과정을 심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 얼굴 표정을 소통 목적에 따른 의도적이고 반사적인 일종의 지향성을 가지는 엠블렘으로 본다면,³⁰⁾ 신체기관의 표현을 ‘화용적 의미’³¹⁾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얼굴이 자극과 반응의 기호임을 나타낸다. 자극의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의 고통은 얼굴의 찡그림, 붉음, 지친 모습 등으로 나타나고 얼굴을 넘어 목을 움츠리거나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는 것 등으로 진행된다. 고통의 징후들에 대한 옆 사람의 반응은 그에 대한 관심과 염려로 나타난다. 얼굴 표정이 화용적(pragmatic) 특징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인텍스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대가 힘들어할 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서는 일련의 실천적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의 인텍스적인 과정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들이 ‘숨어’ 있다. 예를 들어 상대의 힘들어하는 얼굴에서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양심의 가책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 또는 상대의 고통을 구조화하여 사회모순이나 갈등의 문제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식화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양심의 가책은 한 개인의 고통을 통해 생겨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던 것이 새로 생성된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양심의 가책은 얼굴의 고통에 대해 논리적으로 앞서는 아이콘적 기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의식화의 과정도 한 개인의 얼굴 고통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인텍스적인 고통의 기호가 상징의 기호로 자라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반응의 과정에서조차 아이콘, 인텍스, 상징의 조합이 일어나는 것이다.

30) 박여성, 「얼굴의 행태학: 표정의 문화기호학적 연구를 위하여」, 『기호학연구』 19권, 한국기호학회, 2006, 197쪽.

31) 박여성, 위의 글, 198쪽.

얼굴 고통의 표정은 분명히 인덱스적인 것이지만 그러한 고통에 대한 반응의 근거를 찾아내고 고통의 적용 범위를 개인을 넘어 확대할 수 있는 것은 고통에 대한 포괄적인 기호 체계인 아이콘과 상징을 함께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굴 표정의 ‘보편적 유사성’은³²⁾, 그 보편성이 아이콘적인 것이라면 도움을 요청하는 표정이나 도움을 주는 방식이나 태도 등은 문화적으로 분명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다양한 문화적 상징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³³⁾ 얼굴은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표정이든 지 간에 그 뒤엔 감춰둔 내면의 무엇인가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러한 얼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의미를 갖는다. 이는 “얼굴은 (...) 개인의 내부 영역이 외부 세계로 드러나는 기재이다. 이런 표정의 기재들이 타자의 인식 속에 기억된다”는 점에서 인덱스적인 얼굴에 이미 숨어 있는 아이콘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³⁴⁾ 상징과 함께 말한다면 얼굴은 “내밀하고 개인적인 것”이면서 “세계와의 소통의 직접적인 체험의 장”이 되고, 얼굴은 “보는 동시에 보여지는 시선의 장소로서 타인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³⁵⁾ 이를 얼굴의 해체라는 관점에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기호학적으로 보면 얼굴 기호의 양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레비나스 얼굴 윤리학을 가능하게 하는 고통의 경우에도 퍼스의 삼분적 기호 체계가 작동한다. 고통은 얼굴 내면에 숨어 있다가 얼굴로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는 것으로서 얼굴의 고통은 그 자체로 아이콘적, 인덱스적, 상징적 특성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내면의 숨어있는 고통은 아이콘적 기호인 고통의 가능성이며, 드러난 얼굴의 고통은 인덱스적인 구체적인 고통이며, 사회화된 고통은 상징적인 일반화된 고

32) 박여성, 위의 글, 216쪽.

33) 퍼스에게 있어 완전한 상징은 기호의 순수한 일반화와 규칙화로 표현되는 삼차성(33)으로 기호화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연규의 논문 “퍼스기호학의 이해” 185쪽 참고

34) 이종선, 「얼굴, 그 해체와 재구성에 대한 탐구」, 『동양예술』 제30호, 한국동양예술학회, 2016, 138쪽.

35) 이종선, 위의 글, 142~143쪽.

통이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타인에 의해 강조되고 가시화된 고통이 인덱스적인 고통이다. 레비나스가 고통을 언급할 때 그가 강조하고 의미 있게 보고자 했던 고통은 인덱스적인 것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선부르게 고통을 일반화하는 것도 고통에 대해 회피하는 태도가 될 것이다. 비록 윤리가 개별 고통의 일반화로 향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고통에 대한 직접 대면 없이는 의미가 없으며 말 그대로 요청된 윤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레비나스의 고통 받는 타자의 얼굴로 인해 윤리생성에 항상 문제가 되어 왔던 의문은 그의 윤리 서술에 존재론적 기반이 있는가하는 것이었다. 만약 고통 받는 얼굴이 인덱스적인 차원에서만 논의된다면 우리는 존재론적 기반을 기대할 수 없다. 실제로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이러한 ‘존재론적 결여’를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얼굴보기는 순전히 인덱스적인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얼굴보기는 실패하고 그것이 비유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만약에 개별 얼굴에서 아이콘적 특성과 상징적 특성을 모두 찾아내고 그것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호로 읽어낼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많이 해결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퍼스의 기호체계에 있어 인덱스만 유일하게 있고 아이콘과 상징이 없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다. 이 셋은 그 정도를 달리 할뿐이지 함께 작동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얼굴보기의 존재론적 기반은 자연스럽게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레비나스의 얼굴윤리학에 존재론적 기반이 있다 또는 없다라는 논쟁은 퍼스 기호학의 관점에서 보면 무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절대적 타자성으로 드러나야 하는 얼굴이 눈, 코, 귀, 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개별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타자의 얼굴은 우리가 마주해야 하지만 볼 수는 없는 그 무엇이다”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³⁶⁾ 이 볼 수 없는 그 무엇은 개별적 얼굴 너머의 흔히 초월과 무한이

36) 최진석, 「바흐친과 레비나스: 얼굴과 사건, 윤리적인 것의 생성에 관하여」, 『한국노어

라 불리는 가능성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인덱스적인 차원에 한정해서 레비나스의 얼굴을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레비나스에게 있어 타인에 대한 말건넬이란 “구체적 현실의 타인을 향하기보다 형이상학적 타자를 지향하는 느낌이 더 강하다”고 할 때,³⁷⁾ 이 형이상학적 타자는 신의 속성에 속한 것이고 퍼스 식으로 말하면 아이콘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형이상학적 타자란 인덱스적 얼굴에 앞서 인덱스적 얼굴을 본래부터 근거지우는 가능태로서의 아이콘적 얼굴이다. 퍼스 기호학의 차원에서 정확히 레비나스의 얼굴은 어디에 해당될 것인가. 얼굴을 퍼스의 삼분적 기호해석학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 의문을 굳이 혼란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 얼굴의 존재론적 기반은 인덱스적 얼굴을 가운데 두고 앞에서는 아이콘적 얼굴, 뒤에서는 상징적 얼굴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레비나스의 윤리 체계에서 형성된 얼굴은 고통으로 대표되는 얼굴이다. 그 얼굴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³⁸⁾의 얼굴이며, “혈 벗고 굶주리는, 매 맞고 죽어가는”³⁹⁾ 고통의 얼굴이다. 그러므로 얼굴을 논함에 있어 가장 주목해야 할 얼굴 표정의 대표성은 고통이라 할 수 있다. 박정호가 제시하는 몇 가지 고통의 특성을 살펴보자. 그는 고통의 경험을 사적인 경험, 수동적인 경험, 부정적 경험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그는 브랜드와 안시를 인용하면서 고통에는 “바깥의 존재가 없으며,” 레비나스를 인용하면서 고통을 “존재의 면제 불가능성”으로 본다.⁴⁰⁾ 이것은 고통의 아이콘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아직 개인의 구체적인 얼굴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계기가 주어지면 인덱스적인 고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고통이다. 숨김과 은밀, 이 둘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

노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 2009. No.6, 2009, 93쪽.

37) 최진석, 위의 글, 94쪽.

38) 레비나스, 엠마누엘, 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2쇄), 2009, 101쪽.

39) 레비나스, 엠마누엘, 양명수 옮김, 『윤리와 무한』, 다산글방, 2005, 126쪽.

40) 박정호, 「고통의 의미: 레비나스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22권 4호, 2011, 133~134쪽.

지만 한 사람의 구체적인 고통을 드러내게 하는 배경이 되며 고통의 존재론적 조건을 형성한다. 둘째, 고통은 레비나스 타자 윤리학에서의 타자성이 보여 주듯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경험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강력한 인덱스적 기능을 하게 된다. 수용불가능성, 즉 “의식에 수용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어” 터져 나오는 고통,⁴¹⁾ 그리하여 그러한 고통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윤리적 관계의 인덱스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레비나스는 바로 이 수용불가능성으로부터 타자에로의 열림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수용불가능하기에 고통 받는 자는 신음하고 한탄하고 울부짖고 한숨 짓는데, 바로 여기에 타자로부터의 도움에 대한 근원적인 요청”이 있게 되는 것이다.⁴²⁾ 셋째, 타자의 고통을 통해 윤리적 전망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인덱스적인 과정 이후의 일이다. 구체적인 얼굴에서 만들어졌던 고통이 차이를 벗어나 순수 타자성, 순수 낯센으로 전개되고 상징화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앞의 표에서도 보았다시피 개인 내면의 고통의 사회화된 고통으로 확장되는 과정은 개인의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든다.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고 책임지는 행위는 얼굴에 드러난 고통의 인덱스적인 상황이 상징적 상황으로 자라나는 상황이다. 고통 받는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고 뭔가를 주는 행위, 배려하고 염려하는 행위 등은 모두 인덱스적인 데에서 출발하여 윤리적 행위의 다양한 상징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공포, 분노, 불쾌함, 슬픔, 놀라움, 기쁨 등에는 보편적인 요소가 있다.⁴³⁾ 인간의 감정은 얼굴에서 가장 잘 나타나며 그것은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 누구에게나 같은 형태의 표정으로 나타난다. 문명에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오지의 원주민이나 도시 한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슬픔 때의 표정, 즐거울 때의 표정은 같은

41) 박정호, 위의 글, 135쪽.

42) 박정호, 위의 글, 150쪽.

43) 폴 에크먼(이민아 옮김), 『얼굴의 심리학』, 바다출판사, 2006, 53쪽.

방식으로 나타난다. 얼굴로 나타나는 다양한 윤리적인 표정들인 측은함, 동정심, 미안함, 죄송함, 고마움 등도 마찬가지이다. 얼굴을 통해 표정 일반을 추론할 수 있고, 그것이 사회화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된다. 슬픔의 얼굴은 체념과 무력감으로 나타나고 괴로움으로 일그러지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는가를 알게 한다. 이 모든 전체 과정, 특정 개인의 얼굴, 그런 개인에게서 감정 일반을 읽어내고, 그것을 사회화하는 과정은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레비나스가 말하는 얼굴보기는 이 세 가지 과정이 총체적으로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윤리적이 되게 한다. 단순히 한 사람의 얼굴을 직접대면해서 윤리적이 된다고보다는 이 전체 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윤리적이 되기 위한 제1원인에 대한 물음을 신이나 신적 사랑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관점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서 찾을 것인가라는 식으로 제한해서 접근해서는 적절한 대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얼굴 기호에서 봤다시피 이 모든 다양한 기호들을 서로 관련시켜야 할 것이다. 레비나스의 윤리를 말 그대로 얼굴만 통해 보려고 하는 태도는 눈에 보이는 얼굴만으로 한정하여 접근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V. 나오는 말

레비나스의 얼굴보기는 퍼스 기호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덱스가 가장 강조된 경우이다. 이러한 인덱스적인 얼굴이 우리로 하여금 윤리적이 되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를 책임과 관련해서 본다면 레비나스에게 있어 책임이나 배려 등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사회화 과정을 밟는다. 비록 얼굴이 지닌 강력한 장소성과 현장성, 직접성으로 시작해야 하는 탓에 얼굴의 사회화가 상대적으로 약

해지고, 결과적으로 그가 말하는 책임이 일반화되기는 쉽지 않는 탓은 있다. 그럼에도 책임은 직접적인 타인의 얼굴보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상징화되어 출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덱스가 없는 상징은 레비나스의 얼굴 윤리학에서 허구가 되고 위선이 되기 쉽다. 그에 따르면 국가나 사회가 책임을 진다든지 하는 말은 무의미하다. 그의 정의론도 개인적인 것이지 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그의 정의론에서 항상 발생하는 제3자의 문제도 바로 그의 책임의 소재지가 구체적인 타자라는 인덱스적인 상황이나 조건을 잃지 않기 위한 ‘긍정적인 모험’이라 할 수 있다.

얼굴이 갖는 직접성은 얼굴 기호 중 인덱스가 가장 강렬하게 작용하는 지점이다. 특히 얼굴에서는 시선이 차지하는 영역이 인덱스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⁴⁴⁾ 윤리적 사건의 경험은 이러한 직접적인 얼굴보기에서 시작한다. 이 점은 그의 얼굴보기의 윤리학이 어떤 식으로든 주어진 시공간에서의 특정 개인을 통해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얼굴에서 신적 얼굴을 볼 수 있는가, 또는 이웃의 얼굴을 볼 수 있는가의 문제는 직접적인 얼굴보기의 정도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신적 얼굴과 이웃 얼굴로의 진행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퍼스의 “상징은 자란다”라는 말에 담긴 뜻은 기호는 정체되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데 있다. 이는 얼굴보기라는 행위가 보편적 얼굴과 사회화된 얼굴 양방향으로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얼굴은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아이콘, 인덱스, 상징으로 진

44) 퍼스의 기호학을 아이콘, 인덱스, 상징으로만 나누었지만 실제로 그의 10개 분류법을 활용하면 좀 더 정밀한 분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얼굴에서의 ‘시선’, 자극에 대한 윤리적 반응으로서의 양심, 이어 일어나는 배려의 손길, 그리고 책임의 식 등을 그의 10개 분류법으로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다. 논자는 10개 분류법을 다른 영역에 적용한 바가 있고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얼굴 기호 분석에도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논의의 한계를 넘기 때문에 생략한다.

행하지만 그 과정을 그대로 밟는 것은 아니다. 인과적인 관점에서는 강력한 현실태, 즉 인텍스적인 구체적인 얼굴에서 얼굴 일반의 가능태, 즉 아이콘적인 얼굴로 거꾸로 진행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구체적인 개별의 모습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만들어진 보편성을 찾아 나아갈 수도 있다. 퍼스의 기호학으로 얼굴을 풀이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타인의 얼굴에서 얼굴 윤리학의 체계의 완전성을 담보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레비나스의 얼굴이 신의 얼굴인가 아니면 사람의 얼굴인가라는 의문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레비나스가 사용하는 얼굴 개념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얼굴을 지칭하지만 동시에 초월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는 점은 그의 얼굴 논변의 문제나 한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얼굴 윤리학을 전개함에 있어 얼굴에 대한 이해를 더 풍부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그의 논변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얼마나 잘 정리하고 의미화 시키는 일이 관건이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퍼스 기호학적 접근이 레비나스의 얼굴 윤리학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영안, 「얼굴과 일상」,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 39집, 2012, 280~284쪽.
- 김모세, 「프랑수아 모리악과 타자의 문제; 시선과 얼굴의 개념을 중심으로」, 『프랑스학연구』 36집, 2006, 12~14쪽.
- 김진택, 「시선의 현상학적 경험과 봄의 나르시시즘」, 『프랑스문화연구』 제 16집, 2009, 234~235쪽.
- 박여성, 「얼굴의 행태학: 표정의 문화기호학적 연구를 위하여」, 『기호학연구』 19권, 한국기호학회, 2006, 197~216쪽.
- 박연규, 「퍼스기호학의 이해」, 『내러티브』 5호, 2002, 185쪽.
- 박정호, 「고통의 의미; 레비나스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 22권 4호, 2011, 133~150쪽.
- 박치완, 「레비나스의 ‘얼굴’; 윤리학적 해석이 가능한가」, 『범한철학』, 제 64집, 2012, 176~187쪽.
- 서영이, 「상법(相法)의 은유적 변용」, 『철학』, 제125집, 한국철학회, 2015, 6~7쪽.
- 윤대선, 「타인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인가」, 『레비나스의 타자철학』, 제 9장, 문예출판사, 2009, 285~298쪽.
- 이종선, 「얼굴, 그 해체와 재구성에 대한 탐구」, 『동양예술』, 제30호, 한국동양예술학회, 2016, 138~143쪽.
- 최진석, 「바흐친과 레비나스; 얼굴과 사건, 윤리적인 것의 생성에 관하여」, 『한국노어노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 2009. No.6, 2009, 93~94쪽.
- 레비나스, 엠마누엘, 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2쇄), 2009.
- 레비나스, 엠마누엘, 양명수 옮김, 『윤리와 무한』, 다산글방, 2005.
- 마르틴 부버, 김천배 옮김, 『나와 너』, 대한기독교서회, 2011.
- 미셸 앙리, 박영옥 옮김, 『물질 현상학』, 자음과 모음, 2012.
- 폴 에크먼, 이민아 옮김, 『얼굴의 심리학』, 바다출판사, 2006.
- Levinas, Emmanuel, *Totality and Infinity*,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A Peircean understanding to Levinas' ethics of face

Park, Yeoungyu

In this article, browsing the thesis, “Ethics occurs, when looking the face” I study the thesis using the way of Peircean semiotics and want to disclose the feature of the problematic argument of the face ethics.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Levinas' face whether it is an individual or particular face, or not whether it is only a duty based on the ontological metaphysics. That is, the question of that his ‘face’ is God's face or not makes us to consider what the genuine general ethics is.

Using the way of the triadic interpretation of Peirce's semiotics, icon, index, and symbol, I want to show where the intertwined argument comes from and how the argument can be solved. When we approach to the nature of face with Peirce's semiotics, we can find the significance of ‘his face ethics’ and meet the process of looking face in the different horizon. Considering that Levinas' ‘face’ also has the meaning of transcendence in the practically everyday meaning of it, I try to explain the face by iconic, indexical, and symbolic faces.

While Levinas' face primarily functions as an indexical sign, it also does iconically and symbolically. So I find the possibility of solving the problems of the argument through thinking the relation of different signs. In conclusion, showing the example of the semiotic approach to the face, I am sure that semiotics always would be valid to properly treat the old way of doing philosophy, namely, the ontological metaphysics.

Keywords : Emanuel Levinas, ethics of face, process of looking face, Peircean semiotics, icon, index, symbol

투고일 : 2017. 02. 20. / 심사일 : 2017. 02. 27. / 심사완료일 : 2017. 03. 06.